

生態學的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研究(3)

— 社會實體와 情報를 中心으로 —

朴 許 植

차 례

- | | |
|--------------------|--------------|
| I. 序 言 | 1. 情報채널 |
| II. 社會實體 | 2. 環 境 |
| 1. 生態學的 社會實體 | 3. 情報利用屬性 |
| 2. 社會實體의 情報에너지 活性源 | 4. 情報에너지의 흐름 |
| 3. 情報轉位 | 5. 共有結合의 情報場 |
| III. 社會實體와 情報 | IV. 結 論 |

I. 序 言

모든 研究對象이 마찬가지로겠지만 특히 커뮤니케이션現象은 多角的인 側面的 考察을 要한다. 自然과 生物간의 관계 및 기계문명의 발달에 따라 매스 커뮤니케이션현상이 생물간 관계에서 뿐만 아니라 社會에서도 社會的 遷移(succession)現象을 초래하고 있는 현대에 이르러서는 더욱 더 인접학문의 연구결과들 없이는 커뮤니케이션현상을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人文·社會科學內의 각학문은 물론 공학, 예술, 의학 등에 이르기까지 모든 학문이 커뮤니케이션을 이해하는데 종합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특수성에서 기인한다.

오늘날 인간의 모든 행위 및 의사전달을 內容別로 세분하여 정치학, 행정학, 사회학, 법학, 경제학, 공학, 의학, 역사학, 심리학……등등으로 나누어 연구하고 있으나 어느 학문이든 커뮤니케이션요소가 개재되어 있지 않은 것이 없다. 이러한 관계는 白色光과 프리즘에 의하여 分散된 分散光과의 관계와 같은 것으로, 즉 세분된 학문에 介在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요소를 白色光이 프리즘에 의해 분산되어 나타난 12개 色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12개 色光이 모여 白色光이 되듯이 각 학문에서 個別的인 형태로 내포되어 있는 커뮤니케이션 요소를 종합한 것이 완전한 커뮤니케이션의 實體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커뮤니케이션현상을 이해하는데는 여러 학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으나 여기에는 학문성질상의 차이에 의한 어려움이 제약으로 작용되어 왔다. 이 제약은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이라는 학문적 특수성에 기인되는 점도 없지 않았으나 理論導入방법상에서 생겨난

것도 있다. A라는 학문이 B라는 학문에서 이론을 도입하는 방법에는 ① B라는 학문의 이론을 A라는 학문에 직접적용, 이용하는 방법과, ② A라는 학문의 이론과 B라는 학문의 이론을 종합하여 새로운 관점으로 A학문의 연구대상을 연구검토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前者는 직접도입방식이고 後者는 同化·綜合방식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연결은 後者의 方法을 택해야 하나 종래에는 거의가 前者의 方法을 택해 왔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과학에 있어서의 生態學理論의 도입과정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生態學은 생물과 자연환경, 생물과 생물간의 관계성을 巨視적으로 다룬 학문이어서 이의 독특한 관점들은 인간사회의 이해에도 큰 도움이 되어 일부 사회과학분야에서는 일찍부터 그 이론의 도입을 시도해 왔으나 그 도입은 대부분 인간과 환경에 관한 것이거나 생태학이론의 직접적인 도입에 불과하였으며 그나마도 대부분이 자연과학과 사회과학과의 견해차이로 종합은 거의 全無한 상태였다.

자연환경과 인간관계의 중요성 증가로 인하여 최근에 또다시 대두되고 있는 사회과학분야에서의 생태학이론 도입은 종래와는 달리 同化·綜合의 方法이어야 한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社會科學一般의 研究母體가 되고 있는 社會實體는 생태학에서 어떤 관점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정보와 사회실체는 어떤 관계를 지니고 있는가? 이 문제는 커뮤니케이션과학의 중심과제이지만 기존의 관점을 탈피하여 재검토한 적이 거의 없다.

이하의 글은 이들 문제에 대해 생태학적 관점을 도입하여 살펴본 試論이며, 檢證을 거친 이론이 아님을 밝혀둔다.

II. 社會實體

生物界가 소유하고 있는 生活의 一形態로서 人間은 社會라는 것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의 개념이 表出되고 있는 生物體 각각의 특유한 양식을 大別하여 우리는 動物社會와 人間社會로 나누고 있다. 이 중에서 우리의 관심은 人間集團이 형성한 人間社會에 편중되어 왔다. 이러한 편중으로 인하여 社會라는 개념은 人間中心의 것으로 定型化되었으며 生存의 連繫的 社會概念으로부터 獨立的 主體로서의 社會概念으로 轉位되므로써 이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社會科學一般은 現代社會의 內部的 定位와 外部的 關係에 대한 연구에서 硬直化되었다.

이 硬直은 社會實體에 대한 再檢討가 여러 觀點에서 이루어지지 않은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그 治癒는 제한된 現象學的 資料에 기초를 두고 있는 개념을 벗어나 새로운 觀點의 再檢討에서만 가능하리라 보여진다.

社會實體에 관한 개념은 사회현상을 설명하는 理論들이 다될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것이 지니는 意義는 사회과학 연구자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사회라는 실체가 커뮤니케이션에 의하여 파악되고 있는 것이고 보면 커뮤니케이션 현상의 연구에 있어서도 이의 개념은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社會의 實體를 어떻게 파악하느냐에 따라서 커뮤니케이션현상인 정보문제를 달리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一般的으로 社會科學에서 個人的 集合으로 인식되고 있는 社會의 實體는 生態學的으로 어떻게 분해될 수 있으며 분해된다면 어떠한 구성요소로 분해되는가?

1. 生態學的 社會實體

羅典語의 同僚를 의미하는 Socius에서 연유한 Society의 實體는 무엇인가?

社會를 파악하기 위하여 등장되었던 많은 이론중에서 社會實體를 언급한 것으로는 個人들이 개별적으로는 도저히 產出할 수 없는 集團의 效果를 社會的으로 產出하기 위하여 고안한 協同의인 組織體系가 社會이므로 社會는 단순히 個人的 總和이며 擬制的인 存在여서 個人만이 독자적인 實在性을 가진다고 보는 近代 自然法論者들이 주장한 社會名目論的인 立場과, 全體로서의 社會로부터 獨立한 個人이란 있을 수 없고 個人은 다만 全體로서의 社會에 대하여 그 有機的인 部分으로서 어떤 기능을 담당할 때에만 存在意義를 얻게 된다고 보는 社會實在論的인 立場을 취했던 社會有機體說을 들 수 있다.¹⁾ 즉 社會名目論에서는 社會가 實在하지 않는다고 보기 때문에 社會實體를 個人으로 보고 있는 반면에, 社會實在論에서는 社會全體로서의 群集을 社會實體로 파악하고 있다. 이 두 立場 모두가 社會를 生活樣式의 하나라 하여 同類性, 相互依存性, 協同, 集團性 등의 속성에 기반을 둔 여러 總合으로부터 統合된 하나의 生活體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는 같다. 오늘날은 이와같은 대립을 떠나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그 역사적 조건속에서 구체적으로 포착하는 경험주의적 입장을 취하고 있어서 이러한 논쟁점을 유보하고 있을 뿐 새로운 이론상의 가설은 없다. Aberle 같은 사람은 社會機能論的으로 파악하여 社會란 個人的 生命보다 오래 존속하면서 行動의 자급 자족체계를 공유하는 人間의 集團이며, 구성원의 性的 再生産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보충되고 있는 集團이라고 말하고 있다.²⁾

이와같은 社會學者들의 概念과는 달리 生態學者들은 構成員이 分業을 통해 超個體化의 方向으로 發展함으로써 最適의 높은 生態密度를 지탱하는 方向으로 적응한 編制(organization)가 社會라고 말하고 있다.³⁾ 여기서 말하는 超個體化의 개념은 社會學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社會實體의 內部的 特殊樣式을 설명하기 위하여 生態學者들이 마련한

1) 高永復, 社會學要論, 民潮社, 1965, pp. 20~23.

2) Aberle, David F. et al., 1950. The Functional Prerequisites of a Society, Ethics 60, p. 101.

3) 任良宰, 一般生態學, 二友出版社, 1979, p. 176.

개념이다.

今西(Imamishi)는 꿀벌의 社會를 人間의 사회와 다른 점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超個體化의 개념을 도입하고 있다. 즉 꿀벌에서는 여왕벌과 일벌이 습해짐으로서 자신을 기르고 또 子孫을 만드는 능력을 가지게 되며 이러한 능력의 구별라는 점에서 여왕벌과 일벌이 습해진 하나의 colony가 單獨性 動物의 한마리의 암컷에 상당하기 때문에 種社會는 Specia, Specia를 구성하는 個體의 하나 하나는 Specion으로 구별하여 개념화하고 있다. 개미나 꿀벌에서는 하나의 colony가 하나의 Specion에 상당하며 이들 colony 전체가 구성하는 種의 사회가 Specia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 colony는 單獨性 動物의 個體와는 구별되기 때문에 이들을 超個體的 個體라고 부르고 있다. 이어서 그는 超個體的 個體의 社會學的 用語로서 Genia라는 용어사용을 제창하고 Genia를 구성하는 개체의 하나하나를 Genion이라 부를 것을 주장했으나 이 개념은 아직 사회학에 도입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서 말하는 Genia는 Specion의 특수형태이지 Specia자체의 변화는 아니다.⁴⁾ 즉 다시말하면 超個體的 個體化는 個體가 集團에 예속됨으로서 개체의 完全性を 상실하고 群集이 하나의 個體로 기능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개념으로부터 발전하여 個體가 集團에 參與함으로써 잠정적으로 個體의 完全性中 一部를 상실하는 현상을 人間사회에서 우리는 보게 되는데 이러한 현상을 個體의 一時的 超個體化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人間の 역사는 分業에 의한 個體완전성일부의 상실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어서 人間은 集團에 참여할때 1個體의 完全한 생활패턴중에서 一部를 상실하지만 꿀벌이나 개미처럼 社會實體로서의 生物學的 超個體化를 이루는 것이 아니고 기능론적 분업에 의한 一時的 超個體化 현상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一時的 超個體化概念을 이용하여 사회실체를 정의할때 社會學에서와는 달리 生態學的으로는 一時的 個體의 超個體化概念과 集團의 超個體化概念을 도입하여 다음과 같이 社會實體의 개념을 바꿀 수 있을 것이다.

個人이 직접 社會의 實體로 되는 것이 아니라 個人은 集團에 참여하여 一時的 超個體化로 되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集團의 超個體化 과정을 통하여 社會에 투입되므로써 사회의 실체는 個人뿐만 아니라 集團과 個人을 超個體化시키는 素材도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素材로서 ① 個體群이 소유하고 있는 自然環境과, ② 自然環境+個體群이 형성한 모든 것을 들 수 있다. 따라서 生態學的 觀點으로 볼때 社會實體는 ① 個體群, ② 個體群이 소유하고 있는 자연환경, ③ 自然環境+個體群이 형성한 모든 것으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3要素는 각자 그들 자신의 內在의 水平의 특성을 지니고 있어서 地域社會의 특성은 3 group적 요소의 결합양식 및 비율의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인간은 황인종, 흑인종, 백색인종으로 나누어지며, 自然은 열대, 온대, 한대, 평지, 산악, 자원분포, 산맥, 강 등

4) 前掲書, pp. 176~177.

여러가지 구성요인에 의하여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고, 自然環境+個體群이 형성한 모든 것은 풍습, 행위, 가치관 등 生活樣式과 文化的 多樣性으로 表出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3要素중에서 情報에너지를 이용하는 主體가 人間個體이기 때문에 社會實體는 人間個體인 것처럼 보일 뿐이지 완전한 社會實體는 아니다.

社會의 發展傾向은 原始社會의 個人的 超個體化로부터 文明社會의 集團超個體化로 向하고 있는 것이 歷史的 實相이며 이것은 分業에 의하여 더욱 가속화되고 있다. 이러한 社會內部的 變化는 社會實體의 變化에서 起因되는 것이 아니라 社會의 實體에 축적된 정보의 량과 질의 변화에 起因되는 것이다. 따라서 社會實體의 力動的 變化는 情報과 密接한 關係를 맺는다.

情報은 인간에 의하여 關係성을 創出당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이 포함되어 있는 社會實體는 정보에너지源이라 할 수 있다.

정보에너지源으로서의 社會實體는 이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① 個人 및 個人的 集合인 群集과 ② 群集이 거주하고 있는 自然環境, ③ 人間+自然環境이 형성한 모든 것으로 보게 하는 새로운 觀點을 제시한다.

이러한 觀點에 따르면 이 3 group중 어느 한 쪽이 生態學的으로 닫혀진 圖을 벗어나 직선적 발전으로 향할때 公索라고 하는 情報奇型體가 생겨난다. 이러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사회 시스템속에서 정보를 活性化시키는 것은 무엇일까?

2. 社會實體의 정보에너지 活性源

社會實體의 力動的 Energy는 人間生存을 위하여 活性化된다. 인간이 소유하고 있는 정보 活性源을 이해하기 위하여는 生物界 全般의 정보이용에 대한 메카니즘의 이해가 필요하다.

生物系는 生物的 要素와 非生物的 要素의 結合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결합은 生存을 前提로 그 意義를 지닌다. 生存의 一般原理인 生命은 6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유전자, 세포, 器管, 個體, 個體群, 群集이 그것인데 각 단계가 어떻게 非生物的 要素인 物理的 Energy 흐름과 關係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系도 6단계로 구분된다. 이 6단계중에서 個體 level 이상의 系에 대한 현상에 관심을 갖는 점에 있어서는 生態學과 社會科學이 같다.

個體生命이 Energy 획득 및 소비, 축적과 관련하여 형성하는 關係는 個體와 個體, 個體와 環境, 個體와 集團, 個體群과 個體群, 個體群과 環境 等 여러 상황을 설정할 수 있다. 이 關係에 있어서 個體中心의으로 볼때 生命은 同種의 個體와 群集을 포함하여 環境에 대하여 자기보호를 위한 閉鎖系를 소유하고 있으며 폐쇄계로써만은 不安定한 內部的 系를 維持하기 어렵기 때문에 外部情報利用을 위한 開放系를 설정하여 生態的 安定을 추구하고 있다. 모든 생물이 閉鎖系를 中心으로 生活樣式을 고정화시키고 있지만 고등동물의 최고봉인 인간은 어느 면에서는 閉鎖系보다도 開放系에 더욱 많이 의존하여 生活을 영위하고 있다.

情報의 活性化와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은 바로 이 開放系에서 문제가 되며 開放系가 얼마나 발달되어 있느냐에 따라 정보의 活性和 利用 및 社會實體의 結合度를 달리한다.

一般的으로 높은 level에서는 單位사이에 結合이 허술하고 낮은 level에서는 單位사이의 결합이 단단한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⁵⁾, 이를 커뮤니케이션學的으로는 閉鎖系에 生存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下等動物로 가면 갈수록 個體의 單位結合이 生物的으로 견고하여 相互간에 극히 적은 커뮤니케이션으로도 個體가 살아갈 수 있는데 반해서, 開放系에 生活을 크게 의존하고 있는 高等動物은 生物的 結合이 허술하여 個體 단독으로는 生存의 불안이 크기 때문에 이의 제거를 위한 커뮤니케이션현상이 증대되는 것이라고 바꾸어 말할 수 있다. 특히 생물적 開放系패턴을 복잡하게 영위하고 있는 인간은 他動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정보이용의 능력이 크다. 開放系가 어느 정도 발달되어 있느냐에 따라 생물의 種間 社會現象 및 그들 각자가 형성한 社會實體가 다를 뿐 아니라 이는 開放系를 통한 정보의 損失이 생물의 進化를 일으키는 메카니즘이라고 보는 生物學者들의 주장도 뒷받침해 준다.

이들의 見解에 따르면 進化는 生物的 開放系에 의한 外部의 情報利用으로 오는 閉鎖系의 變化라는 것이다. 따라서 進化는 下等動物보다는 開放系가 발달한 高等동물에서 진폭이 크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Arther S. Boughey는 “Man and the Environment”라는 著書에서 ;

몇개의 根源(source)으로부터 오는 자연도태적 압력에 대응한 進化的 발전은 끊임없이 全世界의 生態系속에 情報(information)를 제공해 왔다. 이 情報는 生態系內에 蓄積되어 왔고 이러한 정보 축적은 生態系를 복잡하게 만들었다. 그러므로 適應과 進化를 生物的 環境(living environmen)과 物理的 環境(physical environment)의 변화에 對應하여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과정으로 보는 대신에 生態系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生物的 情報의 끊임없는 축적으로 볼 수 있다. 進化가 진행됨에 따라 이 정보가 가끔 환경적 변화——자연환경의 변화든 인간이 만든 환경의 변화든——에 대한 어느 특정 個體群의 適應에 적합치 못할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 축적된 정보의 一部 損失이 일어나고 이어서 生物的 멸종이 일어난다.⁶⁾

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生物體의 모든 行爲를 커뮤니케이션으로 보는 立場으로서 社會實體에 대한 정보의 力動的 Energy源은 超個體化를 유발시키는 생물의 開放系 생활패턴이라는 것을 암시한다.

한편, 外部의 모든 것은 정보로 轉位된 형태로서 인간에 작용하며 이때 情報에너지活性的은 社會實體의 3要素中 人間的 要素에 集中된다. 정보에너지는 個人으로 하여금 超個體化 상황을 설정토록 mass化되고, mass化된 정보에너지는 分業이라는 作業을 통하여 群集의 個體密度를 높임과 동시에 個體로서의 生物的 關係양식을 直接性에서 間接性으로 變化시킨다.

5) 前揭書, p. 17.

6) Arther S. Boughey, Man and the Environment, p. 11.

다시말하면 生存하는데 필요한 많은 요소중 分業化된 한가지 일에 종사하는 상태하에서는 個體는 個體의 非行爲的, 非參與的 부분에 대한 것을 他人으로부터 얻는 정보에 의해 보상 받거나 行爲의 規制根據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러한 변화는 生存을 情報利用에 크게 依存토록 하고 있으며 群集의 한 形態인 都市는 人間의 間接化된 生活樣式을 가장 많이 내포하고 있다는 데서 情報利用에 대한 자유와 통제라는 論難의 문제를 몰고 온다. 이러한 논란은 農村人보다는 間接化된 생활양식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都市人에게 보다 더 직접적이며 “정보의 산출과 투입”이라는 면에서도 도시가 量과 質에서 농촌보다 앞서기 때문에 전국적인 정보흐름(information flow)의 核(core) 역할을 도시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社會의 下部構造와 上部構造의 유기적관계도 情報轉位를 통하여 一元化되기 때문에 生活의 間接性은 정보의 이용에 관한 정치, 경제적 새로운 관계설정을 요구한다. Ogburn의 말처럼 人間의 生物的, 心理的 特성은 과거와 현재에 있어서 거의 변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요구는 간접적 생활양식을 가속화시키는 도시의 확대에 의하여 그 當爲性을 증가시켜 가고 있는 실정이다.

Montifiore(1970)에 의하면 現在 5人中에 2人是 都市에 살고 있으며 UNESCO의 推定으로는 2000년까지에는 5人中에서 4人까지는 都市에 살게 된다고 한다.⁷⁾ 이와같은 도시사회의 팽배가 가져오는 새로운 관계설정요구는 인간이 처한 生態學的 間接性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즉 고려의 기반은 신문학에서 주장하고 있는 言論의 充分的 自由權보다 훨씬 강화된 生存權으로서 정보이용과 언론에 대한 자유권을 다루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人間의 社會가 간직해야 할 커뮤니케이션觀의 理念型은 人間中心의 社會構造的 安定을 위한 정보통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人間中心의 生態系 安定을 前提로 한 機能論的 安定을 爲한 정보이용의 자유와 통제가 균형을 이루는 型이려야 한다.

이상과 같은 근거에 의하여 사회실체의 정보에너지 活性源은 ① 人間의 生物的 開放系 次元과 ② 間接化된 生活樣式의 增大次元이다.

그러면 이러한 정보 Energy活性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커뮤니케이션상황으로 轉位되는가?

3. 情報轉位

Mass Communication 現象은 社會實體의 情報化現象의 一種으로서 人間을 총체적으로 조직화하는 힘의 구체적인 集合表象이다. 個人은 정보를 통하여 거대한 사회실체를 파악하기 때문에 매스 커뮤니케이션매체가 얼마나 정확히 社會實體의 力動的 變化를 情報化시키느냐에 따라서 個體群集의 安定度도 변화된다. 신문이나 서적, 팜프렛 등 인쇄매체에 의한 정

7) 任良宰, 前掲書, p. 269.

보거나 라디오, TV, 전화 등 전자매체에 의한 정보거나 간에 모든 정보는 소비와 창조, 저축 및 파괴를 거쳐 흐르고 있다는 動的 개념을 生態學的 社會實體概念은 커뮤니케이션學에 제공한다.

個人은 자기결을 흐르고 있는 情報를 이용하여 정보이용패턴을 定型化하며, 定型化된 個人은 그 자신이 정보가 축적된 사회실체의 分身이 되어 社會的 他人의 정보가치 대상이 된다. 移動하는 사회실체정보의 分身인 個人은 누구를 접촉하느냐와 무엇을 접촉하느냐에 따라 형성되는 정보비교를 가치영역에서 행하면서 커뮤니케이션 內容을 地理的, 時間的, 空間的 次元으로 分散시켜 활성화시킨다. 이 活性化가 바로 사회실체의 情報轉位인데 個人을 포함하는 社會實體는 ① 個體, 個體의 집합인 群集과 ② 個體가 거주하는 자연환경 ③ 인간+자연환경이 상호작용하여 형성한 모든 것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情報轉位도 이 3 group의 결합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즉 이 3 group이 모두가 동일한 情報轉位の 樣式을 지니는 것이 아니라 그들 各者의 運動法則에 의하여 여러 형태로 커뮤니케이션상황에 進入되는 情報轉位樣式을 가지기 때문에 物質로 轉位되는 것이 있는가 하면 소리, 빛, 냄새 등으로 轉位되기도 한다. 轉位가능쪽은 生物的 開放系의 능력에 의존하며 각 감각기관은 커뮤니케이션素材를 받아 들이기 쉽게 정보를 유형화하고 기계적 조작을 가한다. 따라서 커뮤니케이션은 2가지 형태로 발전된다. 하나는 形式의 효율성이며, 다른 하나는 內容의 효율성이다. 형식에 의한 커뮤니케이션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매체에 대한 기계적,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지고, 내용의 효율성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정보의 가치 비교가 이루어진다.

커뮤니케이션 Zero(0) 상태하에서 형식과 내용에 따라 정보가 인간의 커뮤니케이션과정으로 進入되는 것은 인식체계를 통하여 형성된다. 이를 정보에너지의 電位差로 다음과 같이 설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정보 Energy가 質과 量에서 電氣的으로 中和된 社會實體가 人間의 認識系와 결합될 때 정보에너지 電位差에 의한 이동이 일어난다고 보는 것이다. 커뮤니케이션 主體者인 發信者는 능동적이라는 의미에서 (+)電何를 창조하고, 靜的인 차원에서 Energy化한 情報은 (-)電何로 가정하여 이 양자가 Energy 量的으로 균형을 이루는 상태를 커뮤니케이션 Zero상황, (+)>(-)일 때와 (+)<(-)일때로 조건설정을 해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조건설정의 구체적인 것은 생태학에서 언급하고 있는 정보흐름과정에서 형성되는 정보파괴현상에서 유발된다고 볼 수 있다. 社會實體의 情報轉位에 따른 커뮤니케이션은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민족별, 지역별로 encoding과 decoding이 다르며 독특한 사회언어가 형성되는 것도 바로 사회실체의 3 group의 결합양식과 속성의 차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실체문제가 커뮤니케이션현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주는 意義는 ① 人間의 生物的 開放系 次元 ② 超個體化에 따른 생활의 間接化 次元 ③ 情報轉位次元이라고 생각

된다.

Ⅲ. 社會實體와 情報

一般커뮤니케이션學에서 딛고 있는 토대와는 달리 생태학에서는 人間의 生物的 開放系次元과 超個體化에 따른 生活의 間接化次元, 情報轉位次元에 정보에너지活性源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한 새로운 觀點은 생태학을 情報理論으로 고찰한 Ramón Margalef가 쓴 "Perspectives in Ecological Theory"⁸⁾에 간접적으로 암시되어 있는데, 여기서 다루고 있는 정보와 사회실체의 기본구도를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을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위한 틀을 마련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정보채널

어떠한 물질도 정보를 전달하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것은 없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자연계 스펙트럼(spectrum)의 한쪽끝은 혼돈과 과거없는 과거의 영역이며 이의 반대영역은 非決定(no decisions)된 정보 즉 영원히 靜的인 정보만이 있는 영역이다. 이 양領域사이에 있는 自然속의 生物은 어떠한 형태로든 정보를 이용하여 生命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때 정보획득의 가장 큰 ㅅㅅ(source)는 自然이기 때문에 自然은 정보채널로 파악해야 한다고 Margalef는 말하고 있다. 따라서 그는 Entropy와 Energy 개념을 도입하여 生物界현상을 해석하면서 Energy界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時間的 次元의 과거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⁹⁾ 물질(matter)이 있으면 구조(structure)는 성장하고 특수화하며, 과거는 이럴 경우에만 인식될 수 있고 구조는 부분적으로 재구성되어 이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영속적인 非物質 對 物質의 관계(Fokker, 1966)라는 것이다.

이 非物質 對 物質의 관계는 구체적으로는 個體로 부터 集團에 이르는 ecosystem에서 표현되는데 이들이 靜的인 상태에서 動的인 상태로 되기 위하여 필요로 하는 정보채널은 서로 분리된 3層으로 되어 있다고 보고 있다.

이 분리된 3層의 정보채널은

- ① 유전적 채널(genetic channel)
- ② 생태적 채널(ecological channel)
- ③ 문화적 채널(cultural channel)이다.

유전적 채널은 個體에서 다음 世代의 個體를 生産해 내는 生物學的 情報채널이며, 生態의 채널은 서로 다른, 同居하고 있는 種(species)간의 상호작용에 근거를 둔 情報채널이어

8) Ramón Margalef, Perspectives in Ecological Theor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68.

9) 전계서, p. 9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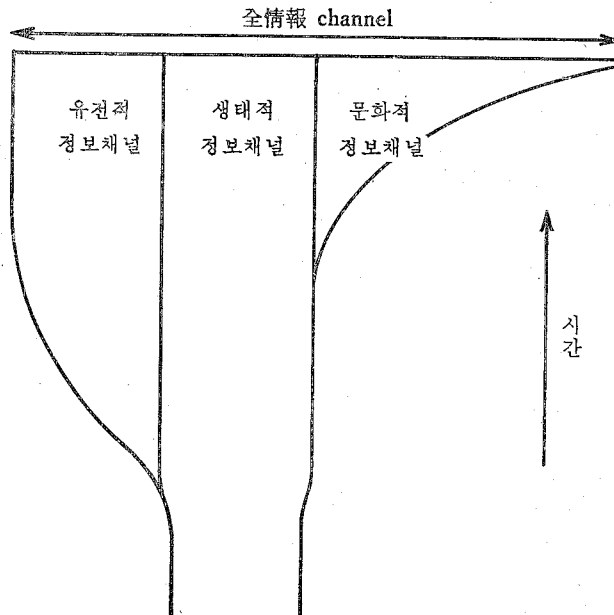
서 靜的이거나 비교적 규칙적인 변화를 하고 있으며, 人性學的(ethological)인 채널이라고도 볼 수 있는 文化的 채널은 個體活動과 經驗에 의해서 學習된 바를 傳達하고 유전적 채널 外部에서 다음 世代로 전달하는 중요한 채널이다.

遺傳的 情報채널이나 生態的 情報채널은 時間的 側面에서 볼때 增加폭이 아주 완만하나 文化的 채널은 人間의 경우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3개의 정보채널중 現代에 이르러서는 가장 중요한 정보채널이 되고 있다. 그런데 遺傳的 채널의 擴大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進化現象을 수반하지만 이제까지 이는 그리 큰 문제로 등장되지 않았었다. 이문제가 중요시된 것은 人間의 科學文明發達에 따른 DNA와 RNA의 構造과학과 核무기 및 公害에 따른 生體變異에서 채널의 폭이 급격히 파괴되어 生命體가 이를 포용하지 못하는에서 비롯되었으며, 生態的 채널도 自然環境 및 他生物과 生存의 loop를 형성하고 있는 측면에서 安定性を 벗어나고 있어 人間の 文明에 의한 生態系 파괴로 채널은 安定성을 파괴당하고 있어 크게 주목되고 있다.

특히 生態的 채널과 遺傳的 채널은 文化的 채널과는 달리 채널의 成長을 要하는 것이 아니고 外部변화에 대한 방어적 성향의 固定的 채널이어서 文化的 情報채널에 의한 이들의 安定 파괴는 人間の 生存自體를 위협하기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주의깊게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文化的 채널이 유전적, 생태적 채널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한편 個體가 生命의 에너지로 이용하고 있는 정보총량은 이들 3채널을 통하여 들어 오고



있는데 이들의 관계를 역사발전과 관련하여 Margalef는 전 페이지의 그림과 같이 부채꼴 모양으로 설명하고 있다.

2. 環 境

有機體에 대한 情報소스로서의 환경은 모든 생물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人間이 자연환경과 대립·협력관계에 있으면서 커뮤니케이션을 內容과 形式 兩面에서 발달시키기 시작한 역사는 인간의 存在時期와 一致하지만 自然環境이 인간에게 주는 영향력의 크기는 옛날과 오늘날이 同一하지 않다.

이러한 發想에서 역사서술을 시도했던 一面을 우리는 프랑스에서 형성된 Annales學派에서 찾아볼 수 있다.

Annales學派는 構造史的인 思考次元을 발전시켰는데 역사적인 時間개념을 도입하여 브로델(F. Braudel)은 「필립 II세 시대의 지중해 및 지중해세계」(1949년)라는 著書에서 그 內容을

제 1부 영원한 것들(Permanences)

제 2부 집단적 운명과 전체의 움직임들(Destines collectifs et mouvements d'ensemble)

제 3부 사건들(Evénements)

의 3부로 나누어 제 1부에서는 地理的 環境, 제 2부에서는 社會構造들, 제 3부에서는 政治事件들로 구분하여 叙述하고 있다. 바로 여기서 그는 歷史가 이루어지는 세가지 段階들 또는 세가지 時間들을

- ① 地理的 時間
- ② 社會的 時間
- ③ 個別的 時間

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런데 地理的 時間속에서는 인간은 자신의 地理的 環境과 對決關係 속에 있고 또 자신의 種을 再生産하는 “生物學的인 關係”속에 있다는 것이며, 社會的 時間에는 상황들, 집단들, 제도들의 역사로서의 社會史가 진행되며, 개별적 시간에서는 事件史, 政治史가 진행된다는 것이다.¹⁰⁾

브로델은 이처럼 歷史叙述에 있어 時間의 개념위에서 역사전개의 참여요소로 환경을 들고 있는 점에서 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역사전개의 一部 함으로 파악하는 一面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도 환경의 영향에 관한 구체적인 인식은 오늘날과 마찬가지로 一元的인 面을 탈피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生物의 구체적인 행동과 思考를 특수하게 定型化시키고 있는 환경을 이제까지는 一元的으로만 파악해 왔다. 즉 個體와 환경과의 관계에서 人間個體는

10) 李相信, 全體史로서의 社會史의 개념과 방법론, 省谷論叢 第11輯, 1980, p.352 再引用.

① 유아기에는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으나

② 성장함에 따라 환경의 중요성은 점차 감소하여 성숙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환경의 중요성은 딱 적어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生態學的 觀點에서 볼 때 환경과 生物간의 관계는 個體 對 環境에서 뿐만 아니라 群集 對 環境간의 관계에서도 형성되고 있다. 이 後者에 對한 論議가 社會科學은 물론 生態學에서도 구체적으로 언급된 바는 없으나 이의 간접자료들이 生態學에서 제시되고 있다.

어떤 지역의 植物群落在 오랜 세월을 거치는 동안 季節의 變遷에 따라 變化를 반복하여 차츰 群落的의 종류가 변하는 현상을 生態學에서는 遷移(succession)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러한 遷移現象을 Margalef는 정보의 축적에 의하여 일어난다고 보고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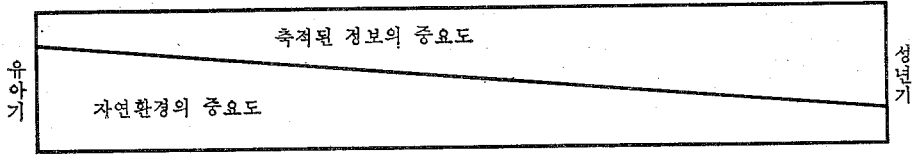
遷移는 한 식물의 組織化가 빈약한 초기에는 환경이나 환경내의 변화에 절대적인 영향을 받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한 植物群의 組織化가 이루어지면 情報傳達이 커져 새로운 정보소스로서의 환경은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植物界뿐만 아니라 動物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個體의 수가 증가하면 數의 증가에 따른 同種의 數的의 증가 효과로서 자연환경에 대한 관계가 형성되고 있다는 점은 커뮤니케이션현상과 관련하여 주목되어야 할 현상이다.

따라서 生物個體가 환경과 이루는 관계는 個體次元과 群集次元으로 二元化된다. 이 次元들은 서로 독립적이지만 個人이 모여 群집이 되기 때문에 속성은 동질적이어서 환경에 대한 관계의 패턴은 同一하다. 즉 個體와 環境的 次元, 群集과 環境的 次元에서 個體는 환경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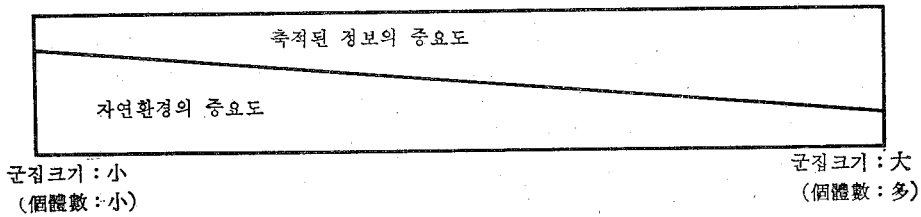
個體는 성숙한다. 個體만 성숙되는 것이 아니라 種도 숫적으로 증가하면서 성숙된다. 個體가 유아기에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다가 성숙되면서 환경의 중요성이 감소하듯이 生物의 種도 種의 발생초기에는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다가 種의 個體數 증가를 수반하는 성숙이 진행됨에 따라 환경의 중요도는 감소한다.

이와같은 二元的 觀點에서 환경과 관련하여 인간의 상태를 살펴보면 인간이 하나의 생물로서 지구상에 種으로서 처음 出現되었을 당시에는 자연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다가 個體의 數가 증가하여 群집의 크기가 커지면서 점차 자연환경의 영향을 적게 받아오고 있음은 주지하는 사실이다. 이는 個體數 증가에 따른 정보 channel의 생물적 확대와 정보수용능력의 증대에 기인된다. 즉 인간은 인간 個體가 자연환경으로 부터 직접 영향을 받음과 동시에 개체가 속해 있는 群집이 자연에서 받고 있는 영향력을 간접적으로 받음으로서 인간 個體가 받는 환경의 영향은 인간이라는 種으로서의 성숙도와 個體로서의 성숙도라는 양 측면에서 고려된 종합적 의미로 파악되어야 한다.

個人次元에서의 時期的 環境重要度



群集次元에서의 時期的 環境重要度



이 견해는 정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바꾸어 볼 수 있다. 個體數의 증가에 따른 군집 크기의 증가는 정보채널의 확대를 가져옴과 동시에 정보의 획득력과 축적용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3. 情報利用屬性

情報利用은 生物의 生存을 위하여 절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다. 生存에 절대필요한 정보교환은 어떤 mechanism下에서 발생하는가?

Margalef는 이점에 대해서 Von Neumann's game의 原理를 적용하고 있다. 즉 게임에 참가하는 두 참가자를 A, B라고 할때 A가 B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려는 목적은 B가 A로부터 정보를 획득하려는 노력을 방해하는데 利用하고자 하는데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원리는 一般 生物界 정보추구의 屬性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Margalef의 견해가 人間에게 전적으로 적용된다고는 할 수 없으나 人間の 정보이용 속성중에서 경쟁이 예상되는 생존적 정보획득의 경우에는 이 견해에 대한 타당도를 검토해 볼직 하다.

한편 에너지로 파악되고 있는 정보는 이 에너지가 生物體에 의하여 획득되며는 정보는 획득된 뒤에 뒤따라 들어오는 同一情報 및 유사 정보의 流入을 방해하는 성질이 생물계 system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봉쇄된 정보는 생물학적으로 굳어지는 속성이 있다고 Margalef는 말하고 있다. 人格은 바로 生物體에 流入되어 굳어진 情報體라는 것이다. 이러한 見解에서 우리의 관심을 끄는 것은 새로운 情報쓰스에 대해 人格의 발달은 획득된 정보를 不浸透性화시킨다는 점이다.

과학적인 人格을 소유한 과학자들이나 이미 成人이 되어 인격이 굳어진 사람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 들이도록 하기가 어려운 것은 초기에 받아들인 정보가 不浸透性으로 變質

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와같은 不浸透性情報에로의 전환은 생물계의 안정을 추구하려는 속성에 기인된다고 보여지는데, 앞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生物體가 지니고 있는 開放系와 閉鎖系의 兩系中 생존의 基本系는 폐쇄계이기 때문에 獲得된 정보는 주변환경의 변화에 대처하는데 一定기간동안의 안정이 요구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진다.

인간의 경우, 커뮤니케이션의 내용은 자연환경과 인간, 인간과 인간간의 관계에서 성립되고 있지만 이것은 어떠한 形態로든 인간을 중심으로 하여 고정된 형식을 지닌다. 이 고정된 형식은 인간의 경우 “태도”라고 일컬어지고 있는데 태도가 커뮤니케이션에 의하여 형성되는 것이면서도 일단 형성되어 굳어진 다음에는 변화되기가 어렵다는 것도 바로 획득된 정보의 不浸透化效果라는 설명이 가능해진다.

요약하여 生物的 情報은 전달되는 정보에너지體가 아니고 획득되어 生物化한 정보이며, 어느 생물에 획득되어지면 그것은 어떠한 형태로든 생물학적으로 안정된 不浸透性 情報가 되어 주변으로부터 계속되고 있는 정보의 자극을 유형화하고 적응하는 기준의 역할을 하면서 生物體의 安定된 생활영위의 기본이 되고 있다.

4. 情報에너지의 흐름

우리가 社會組織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생물계에도 그 下部에 subsystem을 가지고 있다. system內 subsystem간의 정보흐름은 생물계에서는 덜 조직화된 subsystem으로부터 보다 조직화된 subsystem으로 흐른다. 이때 情報은 어떤 형태로든 energy化하여 상호교환이 이루어지며 정보교환과정에서 덜 조직화된 subsystem內에 있는 정보의 일부가 파괴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cybernetics의 관점에서 볼때 情報內容이 다른 두 시스템간의 어떠한 정보교환도 정보의 分割(partition)이나 均等化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兩者의 差를 증가시킨다는 것이 自然界生物에서 보여지는 屬性이라 말하고 있다.¹¹⁾ 즉 蓄積된 情報量이 더 많은 시스템은 정보교환으로 인하여 더 많은 정보를 갖게 되고 축적된 정보량이 적은 시스템은 정보량의 증가가 축적된 情報量이 많은 시스템의 情報增加量보다는 적어 양 시스템간의 정보량差는 더욱 커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人間社會의 個人關係나 組織에서도 보여지고 있다. 個人이 가능한 한 조직력이 높은 조직에 참가하려하는 이유도 바로 이에 기인된다. 個人으로부터 조직으로, 혹은 덜 조직화된 시스템으로부터 더 조직화된 시스템으로 정보에너지는 흐르고 있기 때문에 개인은 축적된 정보량이 많은 조직에 가담하여 生存의 안정성을 증가시키려 하고, 조직은 個人에게 정보를 특수한 형태의 에너지로 공급하면서 個人에 대하여 개인의 기존정보 일부를 파괴시키는 작용을 하고 있다. 즉 組織은 항상 個人의 정보 일부를 파괴시키면서 個人

11) 전제서, p.16.

의 창조적인 새로운 정보를 組織으로 흡수한다. 따라서 現代社會는 조직과 조직간의 정보 교환에 따른 下部組織의 정보파괴를 증가시키고 있는 시대라 할 수 있으며, 또한 個人은 조직과 조직간의 정보에너지 교환에서 形成되어지는 情報破壞地帶에서 특정정보에 휩쓸려 정보의 판단오류를 범하는 기회가 증대된다.

특히 직업의 細分化에 의하여 個人을 기능인 혹은 조직인으로 전락시키고 있고, 시스템도 分化되고 있는 오늘날은 情報의 파괴지대를 理念과 職業上의 境界에 설정하고 있다. 커뮤니케이션의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이것은 오늘날 이 양자를 情報利用의 自由라는 측면에서 재검토해야 할 문제로 등장되고 있다.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宗派간의 대립, 地域社會의 고유성……등이 새로이 流入되는 정보를 파괴하는 기능을 하는데 이것이 이념적인 정보파괴지대의 代表的인 例이며, 세분화된 직업이 수반하는 개인간의 정보교환장에 및 직업 특유의 메카니즘 작용에 따른 個人의 完全自由性 留保 등이 직업간 세분화가 수반하는 정보파괴지대이다.

이러한 情報破壞는 일반적으로 사회의 安定을 지향하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社會構成員은 이 정보파괴에 대한 意識을 구체적으로 느끼지 못하고 이를 단지 言論自由에 대한 부분적 제한이라는 간접적이고도 變形된 것으로 파악할 뿐이다.

따라서 매스 미디어에 대한 검토는 정보전달의 수단으로서뿐만 아니라 정보파괴의 역할에 대한 面도 중요하게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특히 객관적 사실보도의 완전자유가 留保되고 있는 社會이거나 커뮤니케이션思想이 완전히 生活化되어 있지 않은 사회일수록 매스 미디어의 대표적인 신문이나 라디오, 텔레비전은 정보의 파괴역할을 하고 있다. 거대한 都市社會가 발달된 국가일수록 都市社會가 수반하는 간접적 환경경험을 同時的이며 廣域的인 것으로 조직화해야 할 필요성은 증가된다. 事實的인 정보는 1次的으로 매스미디어에 의하여 선택되어 일반독자에게 전달되고 있는데 이때 정보가 왜곡되며는 社會實體의 에너지와 마찰을 일으키면서 個人을 動的 상태로 이끌어 간다. 一定한 기준에 의하여 정보가 스크린되거나 매스 미디어에 의하여 정보가 의도적, 비의도적으로 조작되는 度가 높으면 높을수록 사회실체의 정보에너지와 斥力관계에 놓여 사회는 불안정과 변동을 초래한다.

정보는 흐르는 것이 아니고 획득되어지는 것이며, 정보 에너지 差에 의한 生物學的 生命의 存在肯定이며, 정보의 이동방향은 個人으로 부터 조직으로 향하고 있다. 이의 흐름은 정보의 均等한 共有效果뿐만 아니라 파괴효과, 축적효과를 가져오고 있다는 것이 생물계 일반에서 보여주고 있는 특징이라 말할 수 있다.

5. 共有結合의 情報場

情報교환의 一屬性인 정보파괴는 個人에게 負의 영향으로 作用하는 이외에 個人과 個人의 結合度를 높여주는 기능도 한다. 정보파괴의 一形態인 정보의 共有結合이 이에 해당하

는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정보의 共有結合은 社會性을 위하여 個人이 社會에 投資하는 정보노출을 의미한다.

A와 B라는 두사람이 있을때 이 두사람이 각각 가지고 있는 정보를 10개라고 보면 A가 10개중 2개를, B도 10개중 2개를 내놓고 A는 B가 내놓은 2개까지도 자기의 정보로 활용하고 B도 A가 내놓은 2개의 정보를 자기것으로 활용하여 실제로는 A·B 모두가 10개의 정보 밖에는 가지고 있지 않으나 활용의 측면에서는 모두가 12개의 정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활한다는 假說이다. 이때 제공되는 2개의 정보는 이미 상대방에 대하여 정보로서의 價値는 파괴되며 이러한 파괴된 정보의 총량이 사회를 결합시키는 시멘트기능을 한다고 보는 것이다. 역사의 발전은 바로 個人들의 제공 정보를 증가시키는 운동의 변화과정이며 이것이 文明社會의 尺度이고 이의 진전한 관리여부가 복지사회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이른바 물질적 복지사회로 부터 커뮤니케이션학적 복지사회로의 전환이 大衆社會가 지향해야 할 새로운 방향인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共有結合의 增加는 個人을 完全性으로부터 不完全性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社會의 制度나 倫理, 國家, 組織 等の 利益에 個人의 自由一部를 留保하게 되어 個人은 組織에 혹은 他人에 대한 依存度가 높아지고 個人이 부담하는 위험량은 감소한다. 그와반대로, 제공된 정보의 數가 적을수록 고립적이나 생활의 自由性은 높다. 따라서 個人은 情報의 共有結合을 증가시키는 방향의 사회를 선택하며 社會는 共有結合된 情報의 관리를 위해 이념과 윤리, 法 등을 만들고 이들에 의하여 사회는 특성을 구체적으로 지니게 된다.

특히 정보의 共有結合은 매스 미디어에 의하여 效率性이 좌우되어 共有된 정보에너지의 總量은 個人에 의하여 유지되고 사회실체에 의하여 추상화된다.

따라서 정보의 共有結合場에서는 實質的 內容과 形式이 分離되어 作用한다.

IV. 結 論

社會實體와 情報문제를 관련시켜 고찰할 때 社會實體는 個人에 의하여 情報에너지로 轉位되고 있으며, 사회는 生態的 成熟에 따른 個人의 超個體化로부터 集團의 超個體化를 향하고 있어 現代社會의 수많은 커뮤니케이션현상을 파악하는데 生態學的 情報觀은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된다.

生態學的 社會實體는 ① 人間의 生物的 開放系 次元, ② 超個體化에 따른 生活의 間接化 次元, ③ 情報轉位 次元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社會實體는 정보와 관련, 그 기본적인 考察의 構造를 여러 면에서 새로운 것들을 제시하고 있다.

정보의 채널은 서로 분리된 三層으로 되어 있다는 점, 個體의 成熟도와 個體가 속하고 있는 種으로서의 成熟도에 따라 環境의 영향이 달라지며, 이에 따라 커뮤니케이션내용이

달라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情報의 交換이 情報破壞를 수반하고 있고, 情報은 덜 組織化된 시스템으로부터 보다 조직화된 시스템으로 흐른다고 보는 견해는 생태학과 커뮤니케이션학을 종합한 새로운 관점의 제시라 할 수 있다.

이 분야에 대한 研究는 未開拓이어서 앞으로 이들 見解에 대한 實證的이고 具體的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리라고 생각한다.